

이종모

변호사시험대비
강의계획서

박사 상법

사례형 진도별 모의고사 첨삭

- 답안작성을 중점으로 처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수험경험이 있는 분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
- 첨삭강의를 통해 빈출쟁점 점검하고 더 공부할 내용을 선별하는 강의
- 남은 기간 동안 반드시 공부해야 할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확정하는 강의
- 핵심적인 논점들을 문제화하고 명확한 이해를 돕는 해설자료를 제공
- 문제해설 과정에서 중요 논점들을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법의 주요논점을 충분히 정리하는 강의
- 출제위원급 교수님들이 주목하는 논점을 정리하여 만든 문제를 통해 실전적으로 적절한 답안작성에 대비하는 강의

일 정

2023. 5. 17(수) ~ 5. 25(목), 총8회, 오후, 월~토 강의

시험 오후 1시30분~2시30분

강의 오후 2시 40분 ~ 3시 40분

대면첨삭 첨삭 시간은 개별공지

교 재

-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 + 실전 답안 해설(제공)

상법 사례형 진도별모의고사 첨삭

강 의 특 징

첨삭강의를 통해 빈출쟁점 점검하는 한편 공부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더 공부할 내용을 선별할 시간을 갖습니다.

최근 5년간 주요판례를 중심으로 구성된 사례형 문제를 풀이함으로써, (1) 주요 쟁점정리,

(2) 최근 판례 논의 정리, (3) 고득점 답안작성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제공할 자료의 샘플입니다.

자 샘

료 플

1. 변제 1회 민사 3문

가. 사실관계

(3번) 업무집행자
자 등의 책임 요건

甲주식회사(이하 '甲회사'라고 함)는 건설업을 정관상의 목적으로 하여 2010. 1.경 설립된 비상장회사이며 B를 대표이사, C와 D를 이사로 등기하고 있었다.

주주 A는 甲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의 35%를 보유하고 있는데 평소 甲회사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B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甲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A는 이러한 운영방식에 불편을 느껴 대표이사직에 취임하기로 결심하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선출하여 등기할 것을 B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B는 다른 모든 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A만 참석한 주주총회에서 A를 이사로 선임한다는 결의를 거친 후 그러한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그 후 B는 이사회를 개최함이 없이 A를 대표이사로 선출한다는 취지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였고, 甲회사의 대표이사를 B에서 A로 변경하는 상업등기를 2010. 9. 1. 경료하였다.

(2번) 표현대표이사
성립요건 존부 신

그후부터 A는 대내외적으로 대표이사 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업무를 하였는데, 甲회사의 다른 이사들은 이를 알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A는 甲회사의 법인인감을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A는 자신을 대표이사로 믿고 거래해 온 乙주식회사(이하 '乙회사'라고 함)와 건설자재의 공급에 관한 계약을 2011. 1. 31. 체결하면서(이하 '납품계약'이라고 함) 그 계약서 서명란에 대표이사 직함과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였다. 납품계약의 주된 내용은 甲회사가 乙회사로부터 건설자재를 2011. 10. 31.까지 납품받으면서 3억 원의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금금(先給金)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건설자재 인도 후 잔금(殘金)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위 납품계약을 체결한 직후 B는 A로의 대표이사 변경 등기를 문제 삼는 다른 주주들의 항의를 받았다. 이에 B가 A를 제외하고 C와 D에게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여 개최된 이사회에서 C를 대표이사로 선출하기로 의결한 후 2011. 2. 말경 C를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한편 乙회사는 납품계약에 따라 甲회사에 납품할 건설자재를 丙주식회사(이하 '丙회사'라고 함)로부터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2011. 3. 초순경 납품계약에 따른 선금금 1억 원의 지급을 甲회사에 요청하였다. 그런데 甲회사가 기대했던 공사의 수주가 무산되어 납품계약에 따라 공급받기로 했던 건설자재가 필요 없게 되었고, 이에 C는 위 납품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1, 2번) 총회결의
하차소급효, 부
실등기 효력 - 대
표이사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했다
는 사실관계 - 사
실과 상위한 등기

(1번) 이사결의의
자 여부 - A가 이
사가 아니므로 -
하지 않음

상법 사례형 진도별모의고사 첨삭

자
샘
료
플

나. 문제

1. 甲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A가 적법한 이사로서의 지위를 갖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에 따라 C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甲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유효한지 논하시오. (30점)

Solution 과반 넘는 주주에게 통지 하지 않음 →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중대한 하자 → 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의 원인 → 부존재확인판결의 소급효 → 등기했으나 A는 이사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함 → 이사가 아니므로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없음 → 이사가 아닌 A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음 → C를 이사로 선임한 이사회소집절차의 하자가 없음

2. 乙회사가 甲회사에 납품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상법상 근거를 설명하시오. (50점)

Solution 하자 있는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로 선임된 A → 대표이사가 아님 → 그렇지만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함(외관) → 다른 이사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회사의 귀책사유) → 乙회사는 대표로 믿고 거래함(선의의 제3자) → 표현대표이사 적용 → 대표 아닌 자의 행위이지만 회사에게 유효한 계약 | 대표가 아닌 자가 대표로 등기함(사실과 상위한 등기) → 거래상대방은 등기를 신뢰함(선의) → 회사는 대표가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 없음(부실등기의 효력) → 乙회사는 이를 이유로도 이행청구 가능

3. 乙회사는 甲회사의 납품계약상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丙회사로부터 구매한 건설자재의 대금 상당액을 A에게 손해배상청구하고자 한다. 이 경우 A의 법적 책임을 검토하시오. (20점)

Solution 검토한 바와 같이 A는 이사도 아니고 대표도 아님 → 그럼에도 제3자인 乙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 A는 이전부터 영향력 행사.업무집행지시 → 업무집행지시자 → 이사와 동일한 책임부담 → 제401조 / 민법 제750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가능(청구권 경합설)

상법 사례형 진도별모의고사 첨삭

자
샘
료
플

다. 사례해설

【제1문】 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의 하자

I. 쟁점의 정리

사안에서 최초 대표이사이던 B는 A의 지시를 받아 다른 주주에게는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A만 참석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A를 이사로 선임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 개최없이 A를 대표이사로 선출하였다. 이는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주주총회의 결의의 효력의 문제이다.

이후 B는 A를 제외하고 C와 D에게만 이사의회의 소집통지를 하고 C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는데, A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자신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에서 C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II.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 주주총회결의 하자의 유형

주주총회 결의하자의 소의 종류로는 **결의취소의 소**, 무효확인의 소, **부존재확인**의 소, 부당결의변경취소의 소 등이 있다. 경미한 절차상,내용상 하자는 결의취소의 소, 중대한 내용상 하자는 무효확인의 소,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부존재확인 소의 대상이 된다.

결의취소의 소와 **부존재확인**의 소 모두 **절차상 하자**를 그 원인으로 하지만,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서 **결의부존재가 되는 하자**와 결의의 취소원인이 되는 절차상 하자의 구별에 관하여는 명백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결국 양자는 하자의 **경중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

판례는 과반수가 넘는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는 **부존재사유**로 보고 있다(2010다13541).

사안의 경우 전체 주식의 35%를 소유하고 있는 A만이 총회소집을 알고 있었으므로,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주주에게는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이는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소송**의 원인이 된다.

상법 사례형 진도별모의고사 첨삭

자 샘	료 플
--------	--------

【제1문】 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의 하자(30점)

I. 쟁점의 정리

대표이사 B는 다른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A를 이사로 선임하였다. 이와 같이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주주총회의 결의의 효력이 문제이다. 이후 B는 A를 제외하고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고 C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는데, 이사회결의의 하자여부가 문제이다.

II.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 주주총회결의 하자의 유형

경미한 절차상·내용상 하자는 결의취소의 소,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부존재확인 소의 대상이 된다. 과반수가 넘는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는 부존재사유이다(2010다13541). 사안의 경우 65%에 해당하는 주주에게는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소송의 원인이 된다.

2. 주주총회결의 하자에 대한 판결의 소급효

판결의 소급효가 있고, 그 총회결의를 근거로 하여 전개된 법률관계도 무효로 된다. 사안의 주주총회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주주총회로서 총회부존재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A는 적법하게 이사로 선임되지 않았다. 이사가 아닌 대표이사 선임행위도 당해 이사회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효력이 없다. 따라서 A는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상법 사례형 진도별모의고사 첨삭

강 의 특 징

- 현재까지 시행된 변호사시험을 통해 사례형 문제로 출제 가능한 논점들이 어느 정도 특정되었습니다. 첨삭강의를 통해 남은 기간 동안 반드시 공부해야 할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 더불어 습득한 지식을 시험에 맞게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게 되는 소중한 시간인 만큼 핵심적인 논점들을 문제화하고 명확한 이해를 돕는 해설자료를 제공합니다. 동시에 문제해설 과정에서 중요 논점들을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법의 주요논점을 충분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출제위원급 교수님들이 주목하는 논점을 정리하여 만든 문제를 통해 실전적으로 적절한 답안작성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비교적 문제수가 적은 어음수표와 보험법은 매년 보편적인 논점을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대비를 위해 강의범위를 통합하고 핵심적인 문제들만 선별하였습니다. 문제풀이만으로 시험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한 논점에 관한 문제가 틀렸을 때는 완벽히 이해하실 때까지 복습하셔야 합니다. 오답노트를 만들어 해당 논점을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배부하는 실전형 답안을 중심으로 반드시 기재해야 할 내용들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수업에 관련된 의문은 수업시간 이후 대면첨삭시에 직접 질문하셔도 되지만, 공부중 언제라도 SNS를 통해 질문하십시오. 빠른 시간 안에 음성으로 설명을 보내드립니다.
- 많은 공부량과 부족한 시간 때문에 이미 공부한 상법의 복습시간이 부족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례형 문제의 해결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리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의 답안작성 요령에 도움을 드리고자 대면첨삭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정확한 피드백을 위해 시간과 순서를 정해 드립니다. 지면으로 드릴 수 없는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니 꼭 활용하여 실력을 향상시키기 바랍니다. 소소한 답안작성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상법 사례형 진도별모의고사 첨삭

**자
샘**
**료
플**

과목명	시험과목명	사례형 기록형	시험관리과 호	점 수	제정위원회
	1회차		이종모	"상법"	

〈제 1 문〉 - “영업양도의 개념”,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 20점 - 26줄

I. 정답의 정리

Y회사는 영업의 일부를 X회사에게 양도하였는데, 중요한 일부양도인지가 문제이다. 또한 중요한 일부양도인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존경한 경우 그 효력이 문제이다.

II. 영업양도의 의미

상법총칙상의 영업양도가 회사법의 특별결의가 필요한 영업양도와 동일한 의미인가가 문제이다.

1. 학설 및 판례

동일한 법률에 있는 것이므로 같은 의미로 파악하는 형식설과 입법목적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는 실질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형식설의 입장이나 영업용재산의 양도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지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제374조 제1호를 유추적용한다.

2. 소결

법해석의 통일성의 측면에서 형식설의 입장에서 판단하자. 영업용재산의 양도로 영업이 중단 또는 매지되는 경우, 특별결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III.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의 의미

1. 학설 및 판례

중요성 판단에 대해서 판례는 양도대상 영업의 자산, 매출액, 수익 등이 전체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일부 영업의 양도가 장차 회사의 영업규모, 수익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소결

사안에서 Y회사가 X회사에게 일부营业을 양도하였으나 수익창출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중요한 일부양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IV.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영업양도인 경우임에도, 이를 존경하였으므로 전단적 대표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법률이 정한 절차이므로 무효이며,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도 이를 주장할 수 있다.

III. 결론

사례에서 Y는 중요한營業을 양도하면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다.

〈제 2 문〉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20점

I. 정답의 정리

사건은 영업의 중요한 일부양도이므로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견권이 없는 주주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상법 사례형 진도별모의고사 첨삭

강의 진도표

회 차	사례형	비고
1회차 5/17(수)	영업양도	대면첨삭
2회차 5/18(목)	주식과 주주	대면첨삭
3회차 5/19(금)	주식의 양도	대면첨삭
4회차 5/20(토)	주주총회결의 하자	대면첨삭
5회차 5/22(월)	이사의 의무와 책임 대표이사	대면첨삭
6회차 5/23(화)	자본의 증감 및 회사의 계산	대면첨삭
7회차 5/24(수)	기업의 구조조정	대면첨삭
8회차 5/25(목)	회사법 전 범위 종합	대면첨삭

선택형 그룹 레슨

- 강의 후 바로 이어지는 선택형 지문해결을 위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선택형과 사례형에서 모두 강조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 상법총칙/상행위편에서는 상법의 특성상 특정한 부분은 민법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중복되는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민법 공부 지식이 상법에 연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더불어 짧은 시간이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중요 조문에 관한 (1) 이론, (2) 판례, (3) 관련 기출문제를 정리합니다. 시험문제는 “조문”을 중심으로 그 해석인 “판례”가 출제됩니다. 조문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준비하면 합격의 충분한 바탕이 됩니다.
- 정규강의 후 진행되는 1시간 동안 중요쟁점을 충분히 복습할 수 있습니다.